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이 나 리 메 ·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는 동안 무한한 상상과 사색의 세계가 계속 펼쳐질 텐데 모두들 너무나 박수와 체면에만 연연하여 들리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열린 마음으로 음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음악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소통과 이해가 쉽지 않듯 음악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면 음악이라는 친구와 영영 친해지는 힘들 것이다.

“예술가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인간이 바로 특별한 부류의 예술가이다.”

(It isn't that artists are special kinds of people. It's that people are special kinds of artists)

- Eric Gill(영국 문화평론가, 1882~1940)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가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예술 체험을 위하여 방학 과제로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클래식 음악회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또한 국악방송이나 클래식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청취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다른 장르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음악회의 비수기로 일컬어 지는 8월이나 1~2월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공연장의 객석이 꽉꽉 들어차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매진사태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여 최근 2~3년간 교과서 음악을 다루는 전문적인 음악회나 스쿨 뮤직 콘서트 등의 기획이 연주 단체나 기획사에 의해 준비되어 왔다.

이 음악회의 대부분의 레퍼토리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곡들로 꾸며진다. 미래의 관객을 위한 관객 교육 프로그램은 관객 개발을 위한 최선의 마케팅이기도 하면서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음악회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정보와 연주의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끝없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방학 시기에 열리는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장의 객석이 꽉 차고, 공연장 주변도 어린 학생들로 인해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다. 객석의 분위기도 연주에 대한 반응도 신선하고 화끈하기 까지 하다. 이러한 생동감을 지속시켜 이들을 음악회의 단골 손님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리뷰 | 음악

음악회를 간다는 것의 의미와 효과

음악회에 간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연주자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중들은 연주에서 받은 감동으로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들을 위하여 박수를 보낸다. 박수가 나와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거나 이미 익숙한 관객도 있고, 전혀 생소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 고민하는 관객들도 있다. 옆사람 눈치를 보가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벅찬 감동에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악곡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는 관객도 있다.

악장 사이사이에 나오는 박수는 사실 한 번의 큰 마침이 있기에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심지어 요즘은 악장 사이에 박수치는 것은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큰 감동을 받았음을 표하는 행위로 너그럽게 이해가 되기도 한다).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나 「비창 교향곡」 같은 곡은 아주 중요한 정점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곡이다.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렬하게 몰아치는 패시지의 힘 때문에 봇물처럼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전체 휴지부(General Pause)를 끝낸 것으로 착각하여 다른 청중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디가 끝인지를 잘 알고 음악을 듣는 관객들은 이렇게 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게 되면 기분을 상하기 십상이다. 한창 ‘여기만 끝나면 박수쳐야지’ 하고 맘먹고 있을 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면 허탈한 심정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객들은 ‘쾌적한 감상 분위기를 위하여 박수칠 수 있는 순간을 알아둡시다’라는 캠페인이나 박수칠 시간을 알리는 것발이라도 드리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조용하고 점잖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자 음악회를 찾는 음악애호가들에게는 이런 장터 같은 생동감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소음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방학 기간의 음악회에서 일부 청중이 하우스매니저들에게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라며 성을 내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다. 심지어 매니아들에게는 방학은 피해야 할

계절로 여겨지는 추세다.

모든 음악회가 상점에 진열된, 같은 포장의 상품처럼 일률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로비는 시끌벅적하더라도 객석 안에서 음악을 듣는 순간은 적어도 같이 음악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연주회장을 찾은 모든 청중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음악회를 감상하러 오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모든 연주곡을 미리 알고 오리라는 법은 없다. 비단 청중뿐만 아니라 음악 전공자조차도 연주되는 모든 곡을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프로그램을 참고하거나 눈치를 보가며 박수를 치게 된다. 그래서 연주시간이 담긴 프로그램은 이런 의미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비록 연주자에 따라 그 연주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만 대충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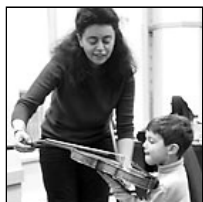
음악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잠시 살펴보자.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도 교육의 한 가지 큰 효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음악회를 통한 또 다른 교육 효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악곡이 작곡된 배경을 알려줌으로써 그 시기의 문화와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넓혀줄 수 있다. 여기에 ‘듣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악곡이 가진 예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회가 선사하는 색다른 공간과 분위기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듣기훈련, 비전공자도 가능하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이 표현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음악애호가 또는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어떤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자. 가깝게는 새로 단장한 고궁이나 청계천, 아니면 지방의 고택이 많은 어떤

듣기 훈련은 악기 연습과는 달리 비전문가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작곡가가 왜 이 부분에 악기를 넣었고, 그로 인해 소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왜 이 부분은 큰소리로 다른 부분은 작은 소리로 연주하는가, 이 악기와 저 악기가 같이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등등 역동적인 음악의 흐름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학 동안 열리는 스쿨 콘서트

마을을 방문한다거나, 멀리는 방대한 소장품을 자랑하는 유럽의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그 곳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거나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경우와 유물이나 작품 앞에 자세하게 적힌 설명을 이해할 외국어 실력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여유롭게 사색하며 감상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 음악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날 연주될 곡이 이미 여러 번 들어 잘 아는 곡이거나, 나아가 그 뒷이야기까지 알고 있다거나, 감상자 개인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음악은 더욱 더 감상자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방학 동안 열리는 스쿨 콘서트는 대개 해설자를 동반하거나 지휘자가 해설을 같이 하는 형태로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수칠 시간을 알려주기도 한다. 주로 전곡이 아니라 교과서에 등장하는 특정한 악장만을 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교실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음악회를 찾는 학생 청중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가 아는 얼마 되지 않는 지식에 기대어 어여쁜 아나운서의 해설을 따라 음악을 듣다가도 어느

새 웬지 모를 지루함과 음악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리라. 아무튼 같은 음악회에서도 서로 다른 개개인의 느낌의 차는 그 사람에게 인식되는 소리—비록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음악 전공자의 귀 훈련 과정이 그 세부내용은 차치하고서 음악회를 찾는 청중에게도 소리의 길로 안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알고서 듣게 됨으로써 음악을 더 가깝게 대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청중을 개발하는 마케팅과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 과정은 학교 음악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음악교과서에서의 듣기 훈련 과정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보완되고 실천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착될 수 있다.

음악 전공자들은 기초학습 과정에 포함된 ‘청음(Ear Training)’이라는 전문적인 기능훈련을 통하여 음악을 듣고 인식하고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악보를 보고 연주로 재생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음들을 악보로 옮기는 작곡에서 빠질 수 없는 기초훈련이다. 단순한 선율·음정·음을 인식하고, 받아쓰는 훈련에서부터 화성이나 대위법적인 선율을 듣고 받아적기, 악기 소리의 특성을 알아내기 등 여러 가지 소리를 인식하는 훈련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전공자들도 각자 전공하는 악기의 특성이나—순정율에 의한 악기, 평균율을 쓰는 악기, 목소리—각자가 가진 음감이 상대음 감인지 절대음감인지 또는 그 중간인지, 좋은 음감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들리는 정도가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훈련을 통해 갖고 있는 음감을 더욱 개발하게 되는데, 물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의 훈련을 통해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레미를 몰라도 도레미가 서로 다른 소리라는 정도만 안다면 다양한 소리의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귀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자들은 연습이나 개인 교습을 통해서 부단히 소리를

리뷰 | 음악

듣고, 비교하고, 따라하는 과정을 수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한다. 각 음악대학이나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동료들의 연주를 듣거나, 자신이 스스로 연주하는 흔히 '향상음악회'나 약어로 '위클리'라고 불리는 '주간연주프로그램(Weekly Recital Program)'을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귀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리적 음향뿐만 아니라 개인차는 있으나 예술적인 감흥에 의한 정서적인 체험도 함께 이루어진다. 음악사나 음악감상 과목을 통해서도 실제 연주가 아닌 음반으로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탐구하게 된다.

음악 비전공자들은 전공자와 음악회에 동행하게 되는 경우 '전문가로서의 한마디'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교내 연주회를 통한 훈련(지도교수에 따라서는 여기에 짝맞춘 비평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이 그들의 '한마디'에 스스로 공신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체험으로부터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악기 소리의 특성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고, 연주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스스로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음악적 개성이나 취향에 대한 발견도 이뤄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듣기 훈련은 악기 연습과는 달리 비전문가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작곡가가 왜 이 부분에 악기를 넣었고, 그로 인해 소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왜 이 부분은 큰소리로 다른 부분은 작은 소리로 연주하는가, 이 악기와 저 악기가 같이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등등 역동적인 음악의 흐름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음악과 친구 될 수 있는 청중교육 되어야

문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내용을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해서 음악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수많은 교향악단, 오페라단, 예술극장 등에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작게는 극장 투어에서

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가족 단위, 학교 교사 대상 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악기 교육이나 용어해설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각종 악기의 연주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음악단체에게 있어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미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전공자를 위한 음악캠프나 경연대회, 어린이나 청소년 교향악단 사업도 대부분 같이 하고 있기는 하다.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나 국내외 행사에서의 연주도 크게 보자면 교향악단만이 가진 현장성의 장점을 이용한 청중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박수를 언제 쳐야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지난 십수 년 간의 한국 클래식 음악의 청중교육의 화두가 되어왔다. 박수를 제때에 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음악 감상의 전부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음악을 듣는 동안 무한한 상상과 사색의 세계가 계속 펼쳐질 텐데 모두들 너무나 박수와 체면에만 연연하여 들리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부쩍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지역적인 격차 해소 등의 사회적인 이슈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질 모양이다. 그냥 무턱대고 18, 19세기 유럽 귀족들이 즐겼던 음악을 아무 사전 정보도 없이 들려주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음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음악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소통과 이해가 쉽지 않듯 음악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면 음악이라는 친구와 영영 친해지는 힘들 것이다. 